불기 2563년

칠석 백중

땅에서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

자기 뿌리와 더불어 마음을 밝히라는 뜻으로

촛불을 켜는 날이 칠석이고 백중입니다.

모습이 없으면 부닥침이 없고, 상대가 없으니 배울 수가 없습니다.

그러니 꼭 생전에 이 도리를 배워야 합니다.

자손들이 그렇게 흙을 고르고, 물을 촉촉하게 주어서 밭을 갈아 놓는다면

자기 씨에서 싹이 났다는 것을 모르고,

자기가 싹으로 그냥 있는 줄 알고 허공중에 헤매는

그러한 영혼의 조상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

은연중에 자기 마음의 뿌리를 알게 될 것이며

자손 또한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.

– 대행선사 법어 –

2019년 (칠석) 8.7 (백중) 8.15

대한불교조계종
한마음선원